



대장암

강윤식/대장항문 전문병원 대항병원 원장

대장암 발생빈도

대장암은 국내서는 위암, 간암에 이어 폐암 다음으로 네번째로 대장암이 차지한다.

최근 대장암 발생 증가율은 상당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대장의 역할

대장은 소장 끝부분에서 시작하여 항문까지 이르는 장기로 그 길이는 약 150cm 정도이며, 결장과 직장으로 나뉜다. 결장은 대장 중에서 직장을 뺀 부분이며, 직장은 항문으로부터 약 15cm 안쪽까지의 대장을 말한다. 대장의 역할은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소장으로부터 받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과 전해질은 흡수하고 배설에 적당한 변을 만들어 이를 저장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대장암 원인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으로 나눈다.

장내의 발암물질이 증가되고 대장점막이 발암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이 대장암을 잘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다. 발암물질의 증가는 고지방식과 육식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다.

더군다나 섬유소의 섭취가 부족해도 장내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다.

발암물질이 장내에서 많이 만들어져도 곧바로 몸밖으로 배출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발암물질이 장내에 오랫동안 머문다면 대장점막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진다.

변비는 이렇게 발암물질에 접촉할 기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장암을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식이섬유의 섭취가 부족한 식습관으로 변비가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쁜 일과로 인해 배변 욕구를 반복적으로 억제한 결과 생리적인 배변 반사가 소실된 경우도 많다. 간혹 대장암이 유전인지 궁금해 하는데 유전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전체 대장암의 5~10% 정도다.

대장암 증상

대장암의 증상은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대장이 시작하는 자리인 우측대장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다소 애매하고 간접적이다. 반면에 좌측대장암이 생기면 증상이 보다 직접적이다.

그래서 우측대장에 암이 생기면 증상이 비교적 늦게 나타나고 배에 혹이 만져지고 빈혈과 피로감 등 막연한 증상이 생긴다. 반면에 좌측대장은 우측대장보다 비교적 일찍 장이 좁아져서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기도 하며, 변이 가늘거나 잘 안 오고 항문으로 검은 피가 보일 때도 있다.

항문 바로 안쪽인 직장에 암이 생기면 변이 자주 마려우면서도 잘 안나오거나 가늘게 나오고 검은 피가 나오는 등 보다 뚜렷한 증상이 나타난다.

검사 시기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거나, 없던 설사를 자주 하는 등 배변 습관에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면, 대장 검사를 해보아야 한다. 용종이 발견되어 절제를 하거나 대장암이나 대장염 등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상태에 따라 6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입원하여 투약과 함께 관찰을 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특히 40~50세 이후에 나타난다면, 또 가족 중에 대장암을 앓았던 환자가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변을 보기가 힘들며, 특히 검은 피가 날 때도 검사를 해야 한다.

즉 40세 이후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필수적이다.

대장 내시경 검사

대장은 성인의 경우 약 120cm~150cm되는 장기로써 직장과 항문으로 이어져 있다.

대장에는 암, 용종(혹), 염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 여러 가지 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병들을 진단하기 위하여 소형CCD카메라가 달린 전자 내시경을 대장이 시작하는 부위까지 넣은 후 빼내면서 카메라를 통해 직접 들어가서 보듯이 대장안을 샅샅이 조사하는 검사이다. 따라서 전자 내시경은 대장질환을 진단하는데 현재까지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필요시 발견된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까지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이다.



수면 대장 내시경 검사

수면 내시경 검사란 검사 시작 직전에 안정제를 혈관 주사한 후에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정제를 통해 매우 안전하며 짧은 시간 동안만 수면을 유도하는 이상적인 약제이다. 검사 후 30분 정도 안정을 취하면 된다.

용종 제거술

대장용종을 내시경을 통해 제거하는 시술이다.

내시경에 있는 Channel을 통해 올가미를 집어 넣은 후 이 올가미로 용종의 밑부분을 잡아 조인후 전기를 통과시켜 잘라낸다. 용종제거술을 위해 특별한 마취나 처치는 필요없다. 왜냐하면 대장점막은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전혀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장 내시경 검사중에 용종을 발견하는 즉시 그 자리에서 제거가 가능하다. 시간은 5분 이내이며 대장용종을 제거한 후에도 특별한 처치없이

귀가가 가능하다. 다만 용종이 컸던 경우나 여러개의 용종을 동시에 절제한 경우에는 시술 후 출혈 혹은 전기화상으로 인한 장천공의 위험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24시간정도 입원하여 투약 및 관찰이 필요하다.

대장암 치유 방법

대장암 치유방법은 대장암은 필히 수술로 절제를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겸하기도 한다. 암이 항문 너무 가까이 위치할 경우, 근치적인 수술을 위해 광범위한 절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항문을 다 절제하고 좌하복부에 인공항문을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인공항문이 생각하는 것 만큼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자동봉합기 등을 사용한 수술 방법과 기술의 발전으로 지난날 같으면 항문을 없앴을 상태인데도 항문을 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을 다 절제하고 좌하복부에 인공항문을 만들어야하는 것이다. 인공항문이 생각하는 것 만큼 불편하고 혐오스러운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다행히도 최근에는 자동봉합기 등을 사용한 수술 방법과 기술의 발전으로 지난날 같으면 항문을 없앴을 상태인데도 항문을 살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대장암 예방 방법

첫째, 식생활을 바꿔야 한다. 평소에 야채를 많이 먹는 등 섬유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섬유소는 자체로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또한 변비를 예방해 대장점막이 발암물질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 준다.

둘째, 더욱 바람직한 것은 정기적인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여 폴립(대장용종)을 미리 발견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대장검사를 하여 용종을 제거한 사람들에게서 대장암 발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대장내시경검사는 경험있는 의사의 기술 즉 테크닉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장은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내시경 삽입을 위해 순간순간의 테크닉을 많이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대장내시경검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이유중의 하나는 경험있는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